

69. 휴거 후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나의 조언...

기도하고 오직 나만을 신뢰해라.

2015.05.09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에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나의 개입 없이 또는 나의 완전한 통제 없이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거나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방어하고 제공할 수 있다고 너희들의 육체를 신뢰할때, 너희들은 너희자신을 실패하게 만들어.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 빈털털이로 환난 속을 걷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길에서 충분히 제공받을 거야.

영혼이 나에게 그들의 모든 신뢰를 나에게 둘때, 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 자신이 제공하고 생존하는 것보다 나의 일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더해질 거야.

너희들의 불안과 혼란은 악마들이 너희들을 체질하여 지치게 만들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적들의 품으로 성급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나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어. 너희들의 신실함은 너희들의 보호막이고 커버야.

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자신의 필요를 그들 자신이 충족시키도록 뛰어들게 만들어.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너희들은 내가 이미 탈출구와 함께 약과 음식을 준비해 놓았고 너희들이 적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덮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클레어, 이것은 휴거후에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동안 대부분에 그들을 준비시킬 거야.

(클레어) 저의 마음은 오늘 제가 본 옐로우스톤의 지진차트에 떠내려가 있었어요. 지진차트에는 선 모양이 아닌 색깔이 있는 막대모양이었고 니비루(행성)가 이러한 지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들은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 정보를 대중들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그들의 유전적인 코드에 맞지 않는 인류의 일부를 쓸어버릴 재앙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내사랑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너희들의 초점은 반드시 사랑과 미덕, 신뢰 그리고 내가 제공할 수 있다는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있어야해. 이러한 중심이되는 태도들 없이 그들은 성공할 수 없어.

나의 보호는 너희들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 나의 보호는 야생의 괴물들을 쫓아낼 수 있고, 나의 보호는 너희들의 아래에 있는 땅을 열어 너희들을 구할 수 있고, 나의 보호는 아무것도 없을 때 물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 나는 영혼들을 나의 왕국으로 모으는 것이 의제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기적이지 않고 베풀고 인도하는 사람들,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제공할 거야.

나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그들의 영원은 양팔저울에 매달려있고, 만약 너희들의 그들의 영원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커버할 거야. 영혼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뭐가 뭔지 알지 못할 것이고, 지구에서의 시련들은 가혹할 거야. 그들은 초자연적인 은혜외에는 그들을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상실할 거야. 치유의 은혜, 그들에게 손을 얹고 나의 평화가 그들에게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치유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에게 말해. 나는 너희들 안에 살고 있어. 너희들의 손을 다치거나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얹고, 나의 손이 움직여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와 너희들의 손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간다고 상상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를 할 거야.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오직 내가 너희들 안에 산다는 거야. 이것은 가장 극적인 질병조차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단 한가지 필요사항이야.

성령님으로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노래해라. 너희들은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통해 완전한 기도를 해. 너희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너희들을 낙담시키지 못하게 해라. 악마들은 너희들이 이 강력한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의식적이고, 불안정하며 정보가 부족한 영혼들을 이용할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제 그 어느때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해야해. 나는 내가 사람이든지, 괴물이든지, 심지어 너희들 자신이든지 너희들을 진정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도를 너희들이 하는 동안에 너희 다른 사람들 중 일부에게 그 해석을 줄 거야.

초자연적인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정말 많은 여러가지 적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대적할 거야. 만약 너희들이 기도를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나는 그것들에 대해 경고할 거야. 너희들은 삶 그 자체보다 나와 함께하는 양질의 기도시간이 더 필요해. 너희들의 공동체에서 아무도 기도 없이는 있을 수 없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공동체에서 약한 연결고리가 될 거야. 그들은 너희들을 배신할 것이고 압력을 받았을때 잘못된 선택을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나아. 즉, 너희들이 그들을 나에게 데려오기 위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나의 기준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떠나게 내버려둬라. 그들은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오직 문제만 일으킬 거야.

마지막으로 향해가고, 상황이 가장 혼란스러워질때, 너희들은 자신의 이해나 계획에 기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기대야 할 거야. 나는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심지어 너희들에 꿈에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지시할 거야. 사건들의 끝으로 다가갈 수록 더 혼란스러워지고 너희들이 구원받기전까지의 시간이 더 짧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라. 힘, 용기, 지혜, 연민,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에 의해서이고,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모든 것이 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달려있어.

너희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주저앉고, 더 이상 대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야. 그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그만둘 거야. 이 사람들을 위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고 연민을 느끼는 것일 뿐이야. 나의 은혜가 그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들은 병든 사람과 장애인들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들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아라. 그들에게 조바심을 내거나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의 구원의 은혜가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돌볼 거야.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누군가를 반드시 남겨놓고 가야한다면,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을 주고, 내가 그들을 돌보고 나의 자비로운 손에 그들이 맡겨지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죄책감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고 이제 나의 차례야. 또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극한의 한계까지 시험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그 한계에 도달하였을때 나에게로 돌아와서 말해라.. “주님, 저를 대신해서 해주세요, 저는 저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럼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나의 능력이 너희들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너희들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기회야.

이제 모든 이해와 용기와 인내를 뛰어넘는 평화로 너희들을 축복해. 결승선까지 이 경주를 해라. 곧 내가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 거야.